

청소년에게 힘을 주는 아름드리 푸른나무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푸른나무재단 앞에 모인 이종익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과 활동가들.

“오늘 수상을 통해서 저와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었음을 국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상의 영광을 그동안 저희를 믿고 성원해 주신 수많은 회원님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민에게 바칩니다. 앞으로도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의 정신으로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헌신해 이 고마움에 보답하겠습니다.”

2012년 아산상을 수상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김종기 설립자의 수상 소감에는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1995년 학교폭력 피해로 죽음을 선택한 아들을 기리며 아버지 김종기 설립자는 다시는 이 땅에 자신과 같은 불행한 아버지가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청예단을 설립했다. 그 뜻대

로 청예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아산상 수상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나고 이름도 청예단에서 푸른나무재단으로 바뀌었지만, 더 이상 우리 사회와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뜻은 여전히 푸른나무재단을 힘차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28년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없던 시기에 최초로 청소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28년간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재단을 설립할 때 ‘학교폭력예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학원폭력, 이지메 같은 단어를 썼어요. 우리 재단이 인식개선운동을 하고 대국민 서명과 국회 청원을 주도하면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야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죠.” 이종익 사무총장은 ‘단 한 줄이라도 법으로 제정되면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말한다. 법 제정 이후 학교 현장에 CCTV 설치 의무화,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등이 실행됐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상담전화 운영, 전문상담 지원, 폭력예방 특화사업과 피해학생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힘을 기울였다.

이종익 사무총장은 ‘2012년 아산상 수상은 우리 재단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투자하면서 재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의 양과 질이 많이 성숙했고, 대외적인 인지도도 높아져 재단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NGO중에서 유일하게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해외 NGO와 교류하고 사례 발표, 포럼 개최 등 국제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었죠.”

사과와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이 필요

최근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꾸준히 줄어들던 학교폭력이 2014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져 초등학생의 폭력이 더 심각해졌다. 푸른나무재단 최선희 본부장은 그 배경으로 스마트 기기 보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증가를 꼽는다. “이전에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등 관계적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폭



2023년 5월 13일 열린 비폭력 캠페인 ‘우리 가치! 우리 함께하장(場)’.

력의 진화를 가져온 셈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2020년부터 청소년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푸른코끼리’를 추진하며 비폭력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13일에는 비폭력 캠페인 ‘우리 가치! 우리 함께하장(場)’을 열고 대한민국을 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널리 알렸다. 또 사이버폭력 문제 대처를 위해 기술적인 면은 물론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연구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싱크디지털웰빙 회담에 초청받아 청소년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청년기로 넘어갈 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적응이 어려워 사회와 단절하는 은둔청년이 되기도 하고요. 학교폭력을 당한 기억이 떠올라 힘들다는 30대 이상의 상담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요. 학교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정신을 무너트리는 일이에요. 학교 안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과와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단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푸른나무재단. 이들은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 날을 기대한다.  글 편집부